

러시아의 석유산업 현황

러시아 경제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석유산업은 러시아의 경제발전과 세계 에너지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석유산업은 러시아에서 가장 경쟁력있는 산업중의 하나이자 국제 경제시스템의 통합을 위한 최고의 도약판이기도 하다. 원유생산은 러시아경제가 개방적이든 폐쇄적이든 간에 높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독립성을 유지할 것이다.

석유는 러시아의 주요 수출품이다. 러시아의 석유와 석유제품수출은 1996년 전체 수출량의 26.3%를 차지했다. 과거 원유생산의 급격한 증가와 대규모의 석유수출은 비효율적인 부문과 국방분야에 재원으로 사용됨으로써 국민의 생활수준이 높아졌다. 그러나 '80년대 후반부터는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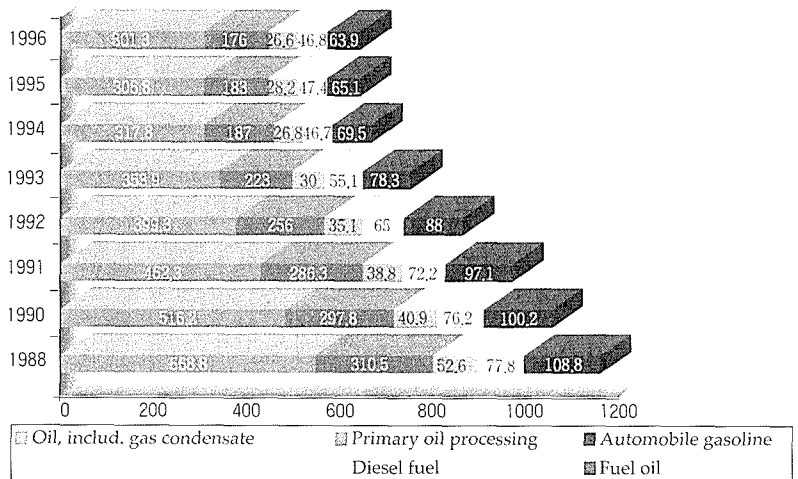
1987년 러시아의 석유생산은 5억 6950만톤으로 최고점에 달했다. 이 같은 높은 수준의 생산은 1988년에

도 이어졌고, 96년 석유산업의 위기 전까지 계속됐다. 그 이후로 석유생산은 급격한 감소로 돌아서 석유산업은 깊은 슬럼프에 빠졌다. 1996년 전체 석유생산은 3억 130만톤으로 1988년의 53% 수준으로 하락했다 (그림-1).

러시아의 주요 원유생산지역인 Tyumen지방의 원유생산은 1억 9700만톤으로 위기 이전수준의 48.6%로 떨어졌다. 원유생산의 감소는 정제량의 급격한 감소와 석유 제품생산의 감소로 이어졌다. 1996년 원유정제량은 고작 위기 이전수준의 56.7%

〈그림-1〉 원유 및 석유제품 생산추이('88~'96)

(단위 : 백만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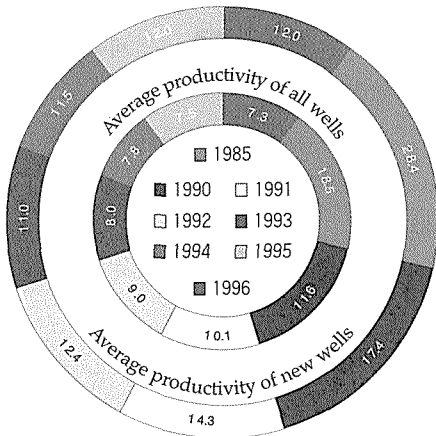


정도였다.

원유생산의 효율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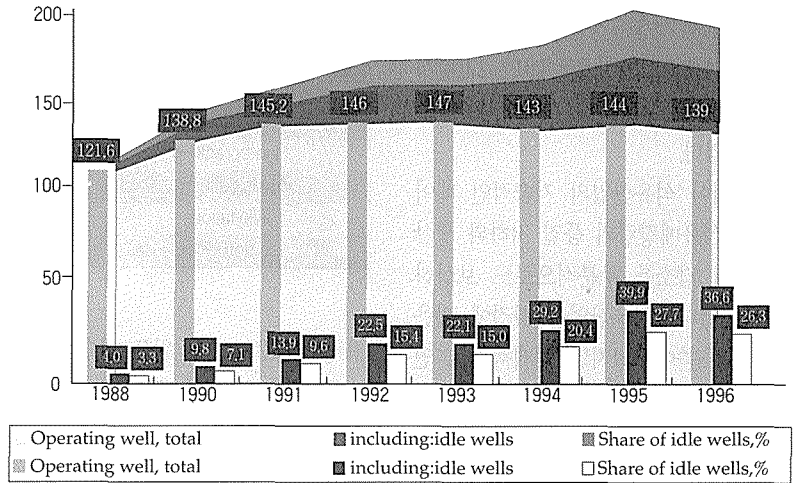
러시아의 원유 생산감소는 많은 지질학적, 경제적인 요인의 결과이다. 지질학적 요인들은 석유매장량 베이스의 품질저하를 포함한다. 저품질 베이스는 주로 사용매장량의 고갈에 기인하며, 여기에는 가장 크고 효율적인 유전이 포함된다. 현재 개발된 유전들 중에서 초기 회수가 가능한 전체 매장량은 48%까지 감소해 대부분의 유전은 생산율을 낮추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상 유정운영의 효율성은 점차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유정들의 하루평균 생산량은 1985년의 18.5톤에서 1996년의 7.3톤으로 감소해 거의 60%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림-2).

〈그림-2〉 유정들의 평균생산성('85~'96)



〈그림-3〉 가동중인 유정추이('88년말~'96)

(단위 : 천, 유정)



이러한 문제들과 연결시켜 봤을 때 새로운 유전의 개발은 이전보다 효율적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유전들은 보다 적은 석유매장량을 보유하고, 석유매장지의 심도가 낮고 한층 복잡한 지질구조를 지녔다. 이

들 유전의 개발은 상당한 비용과 고도의 기술을 요한다.

러시아유전의 고갈은 산업수익성을 감소시켰고 대형 유정폐쇄의 원인이 되었다. 이런 암울한 상황은 낮은 국내가격과 생산성이 낮은 유정개발의 저의적성을 낮추는 높은 세금의 복합적인 결과이다. 대부분의 경우 기술적인 이유가 유정폐쇄의 원인이며, 유정을 수익성있게 만들기 위한 값비싼 시설개수는 현재여건에서는 경제적으로 부적절하다. 결과적으로 쓸모없는 유정의 숫자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1995년말 모든 유정의 27.7%가 사용불가능한 상태였다 (그림-3). 1996년 상황은 약간 호전되어 26.3%가 된다.

또한 새로운 유정설비건설의 급격한 감소는 운영생산설비의 수를 감소

시켰다. 1992년 이후 생산유정의 숫자는 상대적으로 현저한 감소를 보이고 있다. 1991년 러시아는 13만 1300개의 생산유정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1996년까지 단 10만 2400개의 유정만을 보유하여 20.8%의 감소를 보였다.

러시아 석유산업의 기술적인 베이스는 석유매장량의 품질 저하와 생산능력의 감소를 부분적으로도 보상하지 못했다. 석유산업은 확장에 많은 자금을 쏟아부었지만 실제적으로 연구와 개발을 소홀히 했다. 결과적으로 러시아의 석유산업은 세계 기술기준에 크게 뒤처져 있으며, 석유시설의 14%만이 현재기술수준을 충족하고 있다. 나머지 86%의 정유시설은 내구력, 효율성, 생태학적 안전도면에서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열악한 실정이다.

러시아의 유정들은 내구성이 상당히 떨어진다. 러시아유정들의 改修는 약 300일간격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미국이나 서유럽의 유정들은 수리없이 4.5~5년동안 생산이 지속된다. 또한 러시아의 유정은 상당히 비효율적이다. : 현재의 기술로는 석유매장량의 40% 정도밖에 회수할 수 없는 실정이고 높은 점도를 가진 유전에서는 회수율이 15% 미만이다.

생산성을 몇 배 높이고, 현재 원유생산을 증가시키며, 원유의 복구수준을 높이는 특수 수평유정장비(Specialized horizontal well equipment)는 러시아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다. 국내 총원

〈그림-4〉 러시아와 선진국의 고도화시설 비교

Secondary oil refining processes	Process capacity in % to direct distillation capacity, 1993				
	Russia	USA	Japan	Germany	Great Britain
Catalytic cracking	4.1	31.7	14.2	11.5	23.5
Catalytic reforming	8.7	21.2	12.7	16.8	18
Thermal cracking, coking	3.2	12.4	1.8	19.6	8.2
Distillation	15.7	39.5	44	31	41.7
Hydrocracking	0.2	7.9	2.6	8.3	2.9
Hydrorefining	0.6	13.3	27.7	24.1	5.7
Alkylation	0.2	6.3	0.5	0.8	5.1
Isomerization	0	5	1.6	4.2	4

유생산의 3%만이 원유 회수율을 높이는 현대적 기술을 통해 생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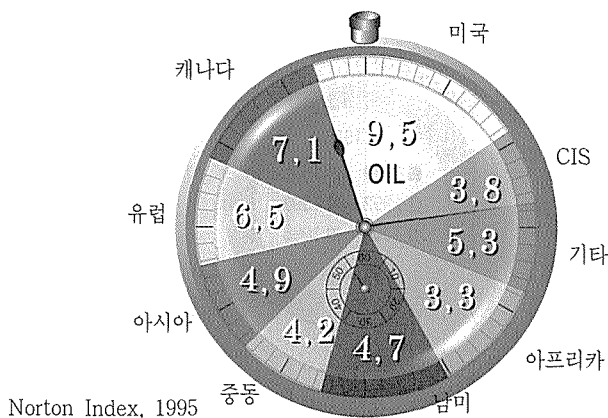
면에 치중되어 발전되어 왔다. 따라서 2차 처리공정은 현재 미개발이거나 저개발 상태이다 (그림-4).

휘발유의 품질수준

러시아 정유산업의 기술수준은 극히 낮다. 러시아 국내생산제품의 톤당 경질제품수율은 63%이고 선진국은 85~90%, 미국은 93%이다. 러시아의 정유산업은 질보다는 양적측

벨스고도화지수(Complexity index) - 석유정유의 기술수준과 2차 처리시설의 점유율 반영 - 는 3.8 을 넘지 않는다. 유일하게 아프리카 국가들의 지수가 그 보다 낮다. 미국의 지수는 9.5, 캐나다는 7.1 일본과 유럽은 각각 6.5를 얻었다 (그림-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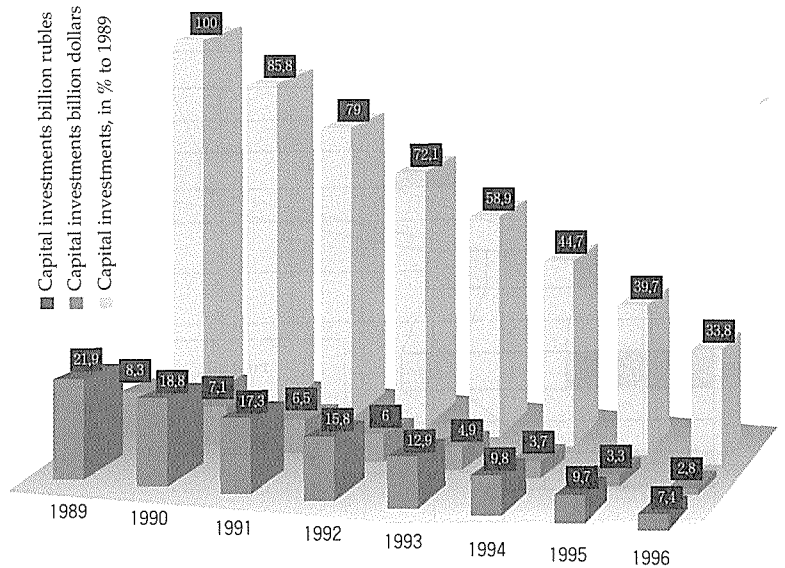
〈그림-5〉 지역별 고도화시설 비율



현재 러시아의 28개 정유공장은 연간 약 3억 2천만톤의 원유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정유회사는 30~50년전에 세워진 것이다. 그들의 정제장비는 낡고 정제시설의 가동률은 60% 이하이다. 고옥탄 휘발유생산의 주요 기술 중의 하나인 *Catalytic Cracking* 공정이 12개 정유공장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은 반면 미국은 모든 정유공장이 동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러시아의 *Catalytic Cracking*과 *Reforming* 능력은 선진국에 비해 몇배 낮은 수준이다.

2차적인 정제의 기타공정의 기술적 낙후 또한 격차가 크다. 결과적으로 러시아에서 생산된 석유제품의 품질은 국제기준에 크게 뒤떨어져 있다. 러시아에서 생산되는 휘발유의 75% 정도가 저급품인 A-76 휘발유인데 이 제품은 다른 국가에서는 생산되지 않는다. 유연휘발유는 러시아 생산휘발유의 55%를 차지한다. 이는 서유럽국가와 미국등지에서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유연휘발유를 거의 생산하지 않는 것과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보다 환경친화적인 고 옥탄가의 휘발유는 총 휘발유 생산량의 19%에 지나지 않는다. 러시아 경유의 40% 정도가 0.2~0.5%의 유황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반면 선진국의 경유는 유황성분이 0.05% 이하이다. 러시아의 중유 역시 2~3.5%의 높은 유황분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는 중대한 생태학상 문제의 근원이다.

〈그림-6〉 석유산업 자본투자 추이('89~'96)



대부분 러시아 정유공장의 기술적인 구조는 세계 생산량과 품질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생산비용과 정제장비의 감가상각은(러시아의 연료, 에너지부에 따르면 감가상각은 80%에 이른다) 지극히 높은 실정이다. 러시아 정제설비는 획기적인 현대화와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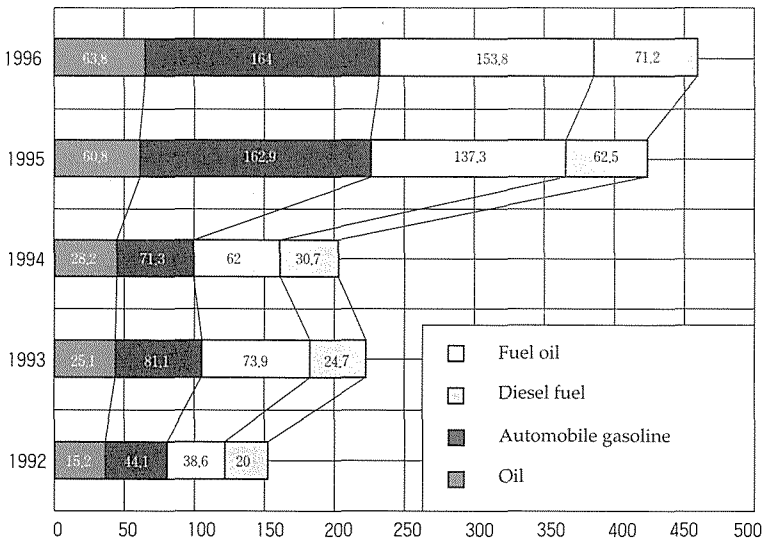
투자

러시아경제의 변화과정과 연관된 수많은 경제적인 요인들은 석유산업으로 유입되는 자본투자의 급격한 감소를 가져왔다(그림-6). 1990년부터 석유산업으로 투입되는 자본지출이 연방예산의 심각한 적자때문에 감

소하기 시작했고, 석유산업의 이익은 줄어들기 시작했으며, 이로 인해 자본의 재투자도 감소했다. 석유산업의 이익감소는 국내석유가격, 세금, 수출량 등에 대한 정부의 규제때문이다. 급속한 인플레이션과 수요감소에 대한 강력한 투자 인센티브의 부재 역시 부정적인 역할을 한다.

개혁기간동안 국내 물가자유화는 석유를 포함한 전략적으로 중요한 많은 러시아 제조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1995년 초 이전 석유가격은 정부규제에 묶여 있었고, 석유산업의 성장은 가격상한선(개혁 초기단계에서)이나 마진에 의해 제약 받았다. 결과적으로 국내 석유가격은 달러 대비 가치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시장가격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

〈그림-7〉 국내원유와 석유제품가격(달러기준)



이었다 (그림- 7).

1994년 말까지 러시아 국내석유가격은 국제가격 대비 30% 수준이었다. 국내가격은 석유가격 자유화와 수출할당제 및 허가제의 폐지에 따라 1995년 세계석유가격에 빠른 속도로 근접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원자재와 설비가격은 급상승해 고생산비용과 저 수익을 야기시켰다. 1993~1994년, IEA는 러시아 국내시장을 위한 석유생산은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IEA는 생산비용과 여러가지 세금(도매석유가격의 50~56% 차지하는)을 조사해 이러한 결론에 도달했다.

러시아의 국가 통계위원회(GOSKO

MSTAT RF)에 따르면 1994년 1월에서 9월까지 러시아 산업의 생산수익성은 단지 2.9%에 불과했다. 국내 시장에서 팔리는 석유가 수익성이 낮거나 거의 없기 때문에 석유산업은 그들의 이익의 대부분을 수출에 의존하고 있다 (그림- 8).

그러나 석유수출에 따른 수익성의 증가가능성은 정부의 수출할당제와 세계 수요의 감소에 의해 제한되었다. 1992년 당시 국제가격으로 비CIS국가에 대한 석유수출은 전체 석유생산량의 16.6%를 차지했다. 1993년 수출은 22.6%, 그리고 1994년에는 28.9%를 차지했다.

종종 소비자들의 대금미지급이 주된 투자감소의 한 원인으로 지적된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연체가 심각하게 투자를 제한시키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의 연체가 지난 몇 년간 석유산업의 공급자에 대한 연체와 국가예산에 의해 보상되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995년 1월 1일 석유생산기업의 수취계정 총액이 12조 7천억 루블인 반면 석유생산자의 지급계정액은 16조 8천억 루블에 달했다. 1995년 수취계정과 지급계정사이의 차는 상당히 커졌다. 1996년 1월 1일 석유생산사기업의 수취액은 22조 7천억 루블이었던 반면 지급계정은 41조 루블이었다. 따라서 지급계정이 수취계정을 81% 초과했다.

〈그림-8〉 국내외 원유판매가격 구조

	Domestic market and export to former USSR countries		Export to foreign countries	
	thousand rubles	%	thousand rubles	%
Oil price	88.3	100.0	214	100.0
Costs, including for transpotation	50.3	56.9	53	24.8
Taxes, payments, deductions	39.8	45.1	104	48.6
Returns	-1.8	-2.0	57	26.6

위에서 열거한 요인들의 누적효과는 산업전반의 투자활동 하락원인이 되었다.

1995년 자본투자는 석유산업의 투자절정기였던 1989년의 33.8%에 불과했다. 불행히도 투자의 양적감소는 투자의 질적향상에 의해 전혀 보상되지 않았다. 석유산업은 아직도 다른 국가의 현대 기술에 뒤떨어진 구식장비와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투자활동의 하락은 급격히 감소된 새로운 생산능력이 반영되었다. 개발과 탐사 굴착은 1988년의 4150만 미터에서 1996년 780만 미터로 떨어져 81% 하락했다. 신규 석유정의 가동은 14,500개에서 3400개로 77% 감소했다 (그림-9).

결과적으로 신규 유정은 유전의 고

갈로 단지 30~35% 유정만을 교체해왔다.

자본투자의 감소는 자산의 교체를 둔화시키고 석유산업 생산설비의 노쇄화를 가져왔다. 노후 설비는 장비와 파이프라인에서 높은 사고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유정의 가동중단과 석유유출 및 생태학의 악화를 유발한다. 러시아 안전국의 생태계 안전위원회에 따르면, 파이프라인 사고로 전체 원유생산량의 1.2%에 해당하는 3백만 톤의 석유를 유출시키고 있다고 한다.

외국인 투자는 아직 석유산업의 재생산과정에 괄목할만한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산업의 실제 수요에 따라 판단하면 투자의 흐름은 예외적으로 낮다. 러시아의 석유 그리고 가스 산업에 대한 전체 외국인 투자액은

1996년 초반 11억 7790만 달러 즉, 러시아로 투입된 전체 외국인 투자액 중 18%였다. 최고의 투자시점이었던 1994년에는 5억 2170만 달러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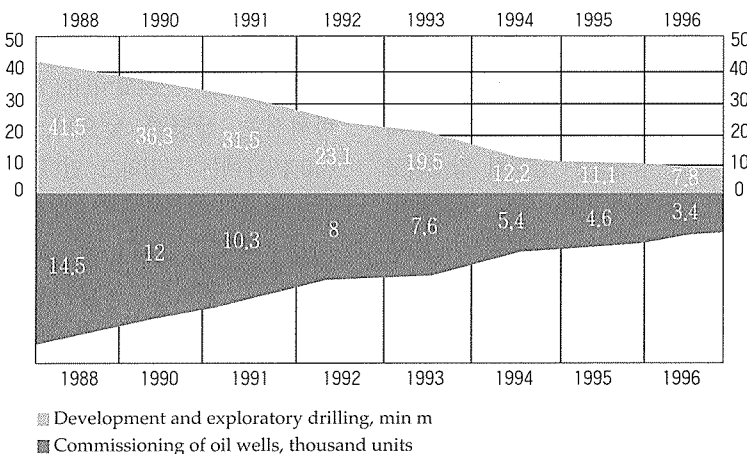
1995년 석유산업과 가스산업으로 투입된 외국인 투자액은 2억 5950만 달러로 감소했다. 미국 석유회사의 하나인 Conoco는 러시아 석유산업의 가장 큰 투자자로 Polyarnoye Siyaniye의 합작사업을 통해 3억 7500만 달러를 투자했다. 대부분의 잠재적인 대형투자자들은 관망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수출

수출지그림들은 특별한 고찰이 필요하다. 불완전한 통계자료로 인해 러시아 석유수출의 상대적/절대적 양이 지난 몇 년간 급격히 증가했다는 여러 간행물들이 나오기도 했다. 오랜기간에 걸친 역사적인 수출통계의 복합적인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증가설은 입증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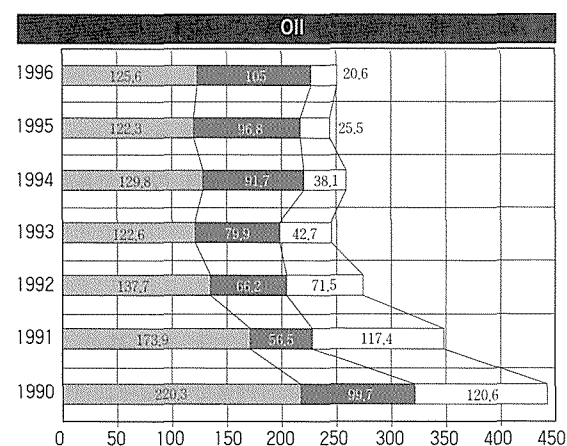
러시아의 원유수출은 2억 5650만 톤, 즉 전체 생산량(1억 2440만톤의 CIS국가의 생산량을 포함해)의 45.1%를 수출한 1988년에 최고점에 도달했다. 그후 석유생산의 감소는 수출의 감소를 초래했다. 1995년 총 석유수출량은 1억 2230만톤으로 1988년 수출량의 47.7%를 기록했다. 결과적으로 수출의 점유율은 39.8%

〈그림-9〉 시추 및 신규유정 가동('88~'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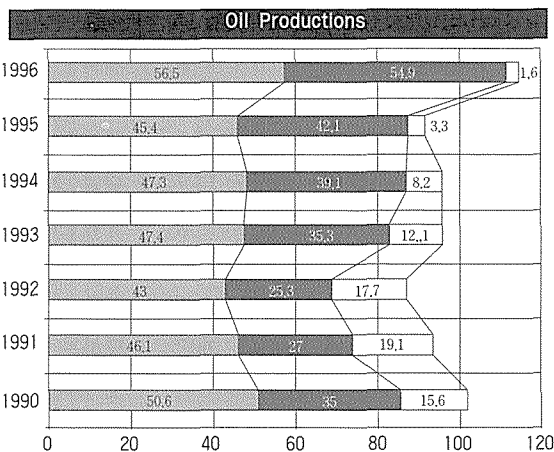


〈그림-10〉 러시아의 원유와 석유제품 수출추이('90~'96)

(단위 : 백만톤)



□ Export to CIS countries ■ Export to non-CIS countries ▨ Export, total



□ Export to CIS countries ■ Export to non-CIS countries ▨ Export, total

로 떨어졌다.

최근 수년동안의 석유수출성장은 국내소비의 감소와 비 CIS국으로의 급격한 수출선의 전환때문이다 (그림-10). 이는 러시아가 세계시장에서 주 원유 공급자로서의 위치를 유지하도록 했다. 동시에 세계시장에 대한 석유수출의 절대적인 양이 80년대말 수준에 현저히 못미친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순 수출지수에 대한 분석은 또한 러시아의 석유수출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는 설을 일축해 준다. 석유의 순 수출은 1990년 2억 150만톤에서 1억1380만톤으로 43.6% 감소된 것으로 추산된다. 석유제품의 순 수출은 4480만톤에서 4230만톤으로 5.6% 감소했다.

원유와 석유제품의 대부분은 서구와 동구유럽국가들에 수출된다. 동시에 러시아는 고유의 자원 잠재력과 기존 수송 하부구조로 다른 구 소련 국가들에게 여전히 주요 석유공급자로 남아있다. 그러나 경제침체의 결과로, 또한 CIS국가들과의 무역이 세계 시장 가격수준에 접근했다는 사실 때문에 CIS 국가들의 구매수요가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CIS국가들에 대한 수출 점유율은 급격히 감소되고 있다. 러시아 원유수출에 대한 비 CIS국가들의 점유율은 1995년 79.1%에 달했고, 석유제품 수출에서는 92.7%에 달했다.

러시아 액체 연료수출액은 1995년 164억 달러에 달했는데 여기엔 원유 수출 123억달러와 석유제품수출 41

억달러가 포함되었다.

국제적인 상호관계로 판단하면 1인당 러시아 석유수출의 절대량은 대규모 에너지 수출을 포함해 충분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캐나다, 노르웨이, 영국과 같은 선진국과 충분히 비교가 된다 (그림-11). 러시아의 석유생산량 대비 석유수출 점유율은 41.7%로, 노르웨이(93.7%)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으나, 영국(40.4%)에는 근접하고 있다. 총석유수출 대비 러시아의 석유제품의 수출 점유율은 27.1%로 캐나다(27.9%) 영국(28.3%)과 거의 같다. 노르웨이는 5.4%에 불과하다.

향후 전망

〈그림-11〉 러시아와 선진국의 원유와 석유제품 순수출 비교

	Export min t	Import min t	Net Export min t	Number of population, min people	Net export per head of population kg/head	Share of net export in production, %
Oil						
Russia	122.3	8.5	113.8	147.9	769	37.1
Canada	42.7	30.8	11.9	29.3	406	15.8
Norway	111.9	1.1	110.8	4.3	25,767	88.6
Great Britain	77.5	43.1	34.4	58.1	592	29.0
Oil Products						
Russia	45.4	3.1	42.3	147.9	286	23.7
Canada	11.3	6.7	4.6	29.3	157	5.5
Norway	9.5	3.2	6.3	4.3	1,465	42.3
Great Britain	22.5	8.8	13.6	58.1	234	14.6

개발유전들의 효율성 하락과 자본 투자의 현저한 감소는 석유생산면에서 러시아의 추가 감소추세를 결정지게 된다. 향후 몇 년간 석유생산은 국내수요의 상대적 안정과 수출의 확대에 따라 안정화될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지난 2년에 걸친 석유산업개발 지수에 대한 분석으로 밝혀졌다. 좀더 장기적으로 보면 러시아 석유생산은 지질학적, 경제적, 정치적 요인들의 복합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러시아는 상당한 석유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몇십년간 현재의 생산수준을 유지하기에 충분하다. 러시아의 지질 광물자원 이용 위원회에 의하면 석유매장량은 현재 생산수준으로 향후 35년간의 생산이 가능한 규모이다. 또한 러시아는 대규모 미탐사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여러 추정자료에 의하면 그 양은 기 탐사된 매장량을 훨씬 상회한다.

그러나 러시아 석유매장량의 품질

은 그다지 높지 않다. 대부분의 경우 미개발된 유전은 이전의 유전보다 생산성도 떨어지고, 매장량도 적으며 심도가 깊고 보다 복잡한 지질학적 구조를 갖고 있다. 이들 매장량의 개발은 많은 유정의 굴착과 특별한 설비기술 이용을 위한 자본 지출의 확대가 필요하다. 석유생산을 위한 비용의 증가는 또한 복잡한 기후조건과 미 개발 하부구조(서부 시베리아 북쪽, 유 러시아, 해상지역 등)를 갖고 있는 지역에서의 굴착때문에 발생할 것이다.

저 품질 매장량과 생산조건은 새로운 생산능력의 확대를 위해 소요되는 자본지출을 크게 증가시키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러시아의 석유생산량은 실제 자본지출액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러시아 석유산업에 대한 투자액은 원유와 석유제품에 대한 국내와 외국의 수요를 포함한 석유산업의 향후 개발에 대한 경제적인 조건, 국내와

세계시장가격수준, 생산자들의 직·간접세, 투자를 촉진하는 유리한 경제조건들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석유와 석유제품에 대한 국내수요는 러시아 경제개발의 전반적인 과정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최근 추세가 향후 1~2년간 러시아 경제성장 잠재력의 회복과 지속적인 안정이 예상되고 있으며, 이는 석유제품의 국내수요를 증가시킬 것이다. 동구와 서유럽 그리고 장기적으로 CIS국가들의 안정적인 경제성장전망을 감안하면 외국시장의 원유 및 석유제품 수요증가를 예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장기 수요의 관점에서 볼 때, 석유생산증가의 여건은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석유산업의 투자기회 확대는 석유와 석유제품의 장래 국내가격상승에 의해 촉진될 것이다. 향후 몇 년간 러시아 석유가격은 세계가격에 근접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러시아 석유가격은 단지 세계가격수준의 65%

수준이지만 원유가격에 대한 상승전망은 매우 밝다.

현재 러시아 석유제품가격은 세계 수준에 도달하였다. 하지만 달성해야 할 거시경제적 재정안정은 수익성을 향상시키고 투자재정기반을 확대시킬 주요세금의 축소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게 될 것이다.

자유화가 지속되면 산업은 회생가능하다.

인플레이션 억제는 또한 석유산업을 포함한 제조업분야에 대한 투자확대를 위한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게 될 것이다. 가까운 장래에 완결될 석유산업의 구조변화는 석유산업생산과 투자과정을 효과적으로 조직화할 것이다.

국제적인 기업경험은 수직통합구조가 석유산업의 가장 경쟁적인 조직구조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러시아 석유산업의 새로운 생산구조는 개혁이전의 구조와 과도기 철폐의 불안정한 구조와 비교해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석유산업의 이 마지막 조직개편은 전체 산업의 장기적 발전의 주요한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

외국인 투자는 러시아 석유산업 발전에 결정적일 수 있다. 국가 투자재원의 제약하에서 석유산업으로 유입되는 외국자본은 경제적으로 합당한 수준에서 석유생산을 안정시킬 수

있으며, 장래 성장을 위한 기반을 형성하며, 현대기술의 도입으로 석유정제산업을 효율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1992년의 추정에 의하면 2000년까지의 러시아 석유산업개발을 위한 외국인 투자의 최소수요는 250~280억 달러에 달한다. 다른 러시아와 외국의 전문가들도 상기 소요투자액을 기본적으로 수긍하고 있다.

러시아 석유산업에 대한 실제 외국인 투자는 정치적 불안정과 러시아의 허술한 법령때문에 극도로 낮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산업은 가까운 미래에 획기적인 변화가 기대된다. 대통령 선거결과는 러시아 경제 특히 석유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의 급격한 증가를 기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외국인 투자재원의 유입은 러시아의 법을 국제적인 수준까지 이끌 새로운 법률제정추진에 의해 촉진될 것이다. 1996년 초 연방법 "On Production-Sharing Agreement"는 발효되었다.

이 법령은 해외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만들어진 대규모의 석유분야 투자계획의 시행을 가능하게 한다. 1996년 4월 Duma주는 역시 석유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기회를 확대하는 임시 연방법령으로서 "On Concession Agreements with Russian and Foreign Investors"를 임시조치로서 채택했다. 장래 러시아 석유산업의 발전은 많은 요인들에 의해 제한될

것이다. 현재 지질학적 조건은 석유생산을 방해할 것이며 자본비용의 증가를 낳게 될 것이다. 그러나 석유산업은 또한 다수의 긍정적인 요인들, 즉, 거시경제적인 안정 ; 러시아 국내외시장에서의 석유와 석유제품의 수요 증가 ; 세금감면, 완전한 제도 개혁 ; 외국자본의 유치를 위한 조건개선 등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이러한 요인들은 투자 증대, 안정성, 석유생산증가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경제적인 조건들을 형성할 것이다. 이러한 경제적 요인들은 열악한 지질학적 요인들을 보상할 것이다. 개선된 경제적 조건들은 러시아가 국내 석유수요를 충족시키고, 세계시장에서 주요 원유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유지하게 할 것이다.

'90년대 후반 러시아 석유생산은 연간 2억 8천 50만~3억톤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10년간 석유생산은 세계석유가격이 상승하고 석유산업의 투자가 성장을 계속 증가한다면 연간 3억 2천만~3억5천만톤으로 증가할 수도 있다.

국내정제능력의 가동율을 높여서 라도 자동차 연료의 국내수요를 충족시키게 되면, 러시아의 석유수출은 1억~1억 1천만톤의 비CIS국가들에 대한 수출을 포함, 연간 1억 2천만~1억 4천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의 자유화는 이러한 전망의 실현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